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2-5895
☎ 967-8133 사무실

組織 運營 內實을 다져가는 '88

열아홉번째의 總會를 맞는 協會는 칠전팔기의 경력을 쌓아 왔다. 來年이면 20년의 成年을 맞게되는 經綸때문에 對內外的으로 엄청나게 跳躍하는 國力과 더불어 올해에는 진정코 組織과 運營이 伸張되어 튼튼한 기반이 잡혀져야 한다.

任員団의 再編成 계기를 協會運營 活性化 轉機로

오는 3月이면 2~3名의 任員을 除外한 모든任員의 任期가 일단 끝나게 된다。

69年以來 수많은 任員改選과 補完이 있었지만 協會活性化에는 언제나 力不足상태였다고 볼수 있다。그러나 風前燈火와 같은 現實속에서도 本會特有의 組織과 協同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경영을 維持해 왔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설사 오는 3月에 革期的인 再編이 이루워지지 않더라도 그의 經綸은 계속될것으로 보나 周邊餘件이나 內部事情을 감안할때 今般제19次 定期總會는 協會內實化를 爲한 一大轉換點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따라서 모든 任職員은 私心을 버리고 協會를 再建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계기를 살리도록 最善의 對策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① 여기에 가장 重要한 觀心은 會長團의 選出에 있다。連任이나 新規選任이던간에 現實에서 協會가 要求하는 諸受任事項을 正直하게 受容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아야 할 것이며 受任事項은 協會의 當面문제이기도 한 증액된 賃貸料의 現實化실현、基本기능수행에 부합된 職員의 充員、系統出荷實績을 向上시킬수 있는 資金運用能力、其他 任職員및 會員의 士氣앙양에 對한 復案등을 重視하고 있음으로 이번 會長團選出에는 이點을 신중히 擧論하여 近似値까지 接近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② 會長團을 除外한 其他 任員들의 T/O는 22명이나 현재 17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2명을 제외한 全員이 오는 3月末로 任期가 끝나게 되므로 결원 5명과 합쳐 20명의 이사진이 새로이 충원되어야 할 立場에 놓여 있다。85年度 定期總會時 진지한 사전討議를 거치지 않고 직할시및 도支部長을 理事自動겸직으로 議決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結果論으로 別所得 없이 3年의 任期를 마치게 된셈이다。

행정집행부서(시·도지부)와 운영의결기관(중앙이사회)을 자동겸직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한 운영제도라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심중한 대처가 要望된다。그러나 協會運營上 必要한 部分은 항상 취사선택을 前提로 해야할 것이다。

③ 하여튼 國家的으로 對內外에 크게 변혁하는 올해 88에 協會自體에도 相當한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受任事項등이 제대로 이루워지는 계기가 된다면 目的하는바 成果를 얻게되어 진정 名實相符한 公益團體로서의 名分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될것을 希求하면서…。〈사무국제공〉

人事發令

〈任〉

경기도 남양주군 사무소장‖박성교 88년2월8일부
충북 청원군 사무소장‖최종운 88년2월3일부。
충남 대전시서구 사무소장‖김영신 88년2월1일부
전남 목포시 사무소장‖최병조 88년1월20일부。

〈免〉

전남 목포시 사무소장‖박순규 88년1월15일부
충북 청원군 사무소장‖유 환 88년1월15일부。(사망)

'88 第1次 理事會 召集公告

根據‖定款 第11條12條에 의거 다음과 같이 第1次 理事會를 召集하오니 필히 參席하시기 바람。

〈다 음〉

⊙日時‖1988年3月8日(火) 14時
⊙場所‖協會長室
⊙議案‖第19次(88年度) 定期總會에 부의할 事項審議 및 준비。

1988년 2월 22일

協會長 朴萬鍾

農林水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해조류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섭취하자

▲미 역

인류가 해조류를 식용으로 이용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 이며 이는 서양에서보다는 동양、특히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식품이다。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관계로 해산물의 종류가 많고 식용도가 높다。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는 400여종이나 되나 식용으로할 수 있는 것은 50여종이고 그 중에서도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은 갈조류에속하는 미역·다시마·톳등과 녹조류에 속하는 파래·청각·모자반、홍조류에 속하는 김·우뭇가사리 등이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미역채전의 소유권이 재력을 의미하며 고려때의 미역은 그 품질이 좋아 원(元)의 상헌품(上獻品) 중 바다채소(海菜)로 그 구색을 갖추었다고 한다。

미역은 우리나라 식생활 풍속에만 있는 것으로 산후와 생일날 하면 으례 미역국을 연상할 만큼 우리와는 이미 친숙해져 있다。

그러면 산모에게 전통적으로 미역국을 먹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미역의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른미역의 영양성분 (100g당)

△수분 12·9% △단백질 20·3g △지방 1·3g △당질 34·5g △섬유 4·0g △회분 27·0g △칼슘 720mg △인 390mg △비타민A 7、700IU △비타민B1 0·05mg △비타민B2 0·37mg △나이아신 1·2mg △비타민C 5mg

☆자료:식품분석표 농촌진흥청 1986。

미역에는 점성다당류인 알긴산이 들어 있어 임신후반기에 흔히 발생하는 변비를 원활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또한 산후에 갑자기 뚱뚱해 지는 부인들이 있는데 이는 산후에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는 수도 있다。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미역은 또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혈제(淸血劑)로서의 역할을 하며 칼슘함량이 많아 산후에 자궁수축과 지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칼슘은 골격과 치아 형성에 필요한 성분으로 젖을 통하여 아기에게 전달되므로 산후 조리식품으로 제격이 아닐수 없다。

장수촌에 대한 식생활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다시마、톳등 해조류를 늘 먹고 있는 사람들에 장수자가 많다고 한다。

미역중에는 사람들이 먹어 소화시키지 못하는 다당류의 한성분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은 변비를 없애주는 역할외에 중금속의 체내흡수를 억제한다고 한다。이밖에도 미역은 염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합리적인 식품이다。

이렇듯 미역은 거의 모든 영양소를 고루 지닌 강한 알카리성 식품으로 산후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의 칼슘공급、여성의 피부미용、중년기의 성인병예방、공해에 시달리기 쉬운 현대인의 건강식품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는 국민영양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소요량에 비해 섭취량이 낮은 칼슘、비타민A、비타민B2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이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국민영양식품으로도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미역의 조리법은 대개 국을 끓여 먹는 것이 고작이다。미역이 아무리 몸에 좋다하여도 하루 세끼 미역만 먹을 수는 없다。더구나 같은 요리법이 반복된다면 중엔 바라보기만 해도 싫어질 것이다。같은 식품이라도 싫증이 나지 않도록 조리법과 상차림에 변화를 주어야 겠다。

즉、미역을 분말화하여 수제비나 국수등의 국물에 조금씨 넣어 먹거나 어린이가 좋아하는 쿠키나 크로케 반죽에도 사용한다。초무침이나 튀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역은 그 생산량이 많아 값도 저렴하면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우수한 식품으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족되기 쉬운영양소를 충족시켜 줄수있다는 식생활의 균형적 측면과 부존식량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의식량자원으로 큰 몫을 할것이다。

慶 第13代 盧泰愚大統領 就任 祝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회장 박만종
부회장 김동균
〃 박찬영
이사 배명철
〃 정상옥
〃 이옥용
〃 정동오
〃 이종엽
〃 김용한
〃 오관수
〃 송인겸
〃 이종철
〃 문대규
〃 이화익
〃 최종대
〃 안승관
〃 김정만
〃 박길부
〃 정영준
〃 황인구